

新 무소유 시대

일본 저성장 풍속도(5)

1인 여성가구 급증... 주택-주류업계, 독신녀에 뜨거워 눈길



일본 도쿄의 ANA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샴페인 바. ANA인터컨티넨탈호텔 제공

7월 1일 도쿄 시부야에 문을 여는 일본술 전문점 '東京(동경)354CLUB'은 '초식남(草食男)'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홍보 문구를 인터넷에 내걸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여, 여자를 취미에만 맞춘 술집들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남성적 기운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이곳으로 오세요!"라고 말한다.

이 술집은 요즘 보기 드문, 전통 축제에서나 쓰는 물품들을 인테리어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신(神)을 모신 붉은 가마는 과거 중요한 마을 행사 때 동네 청년들이 밭을 흘리며 함께 등에 졌던 것인데 아예 홀 중앙에 전시했다. 술통을 망치로 두드려 깨뜨려 먹는 '남성적' 의식도 재연한다. 남자들이끼리의 연대 의식을 술집 콘셉트로 활용한 것이다. 이런 '마초' 가계의 등장은 그만큼 남성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일본에서 '단카이 주니어'라고 불리는 1971~1974년에 태어난 40대 전문직 여성들이 있다. 이들은 남녀 차별 없이 성장한 데다 버블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로 화려한 소비문화를 누리려 만능 어머니 세대처럼 꼭 결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다. '생애독신(生涯獨身)' '독신 귀족'이란 말은 이들을 대표하는 문구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조제연구소의 2012년 '인구조제자료집'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50세가 됐지만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은 10.61%로 집계됐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여성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 총무성은 2010년 현재 35~39세 여성의 미혼율이 23.1%라고 발표했다.

'남편 무소유'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변한 시장이 주거 시장이다. 일본의 주거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침체되어 있지만 1인 여성가구 시장만큼은 다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독신 여성들은 단기적으로는 본인이 쓰다가 향후 노후자금으로 임대할 하기 위해 소형 원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수요에 맞춰 주택 개발업자들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건설회사 '파나홈'은 2011년 '라씨네'라는 이름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브랜드를 선보였다. 2~4주간 직접 살아본 뒤 입주할 수도 있다. 미용, 요리, 호신술 세미나도 열어 입주자들이 함께 배울 수 있고 외관도 디자인과 색감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다이와 하우스'는 여성들이 보안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쓴다는 점에 착안해 주택에 대해 경비회사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24시간 콜센터도 개설했다.

주류(酒類)시장도 변화를 겪는 중이다. 남성

음주는 줄어드는 반면 여성 음주는 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해 알코올을 적게 넣거나 노(Nº) 알코올 제품들이 대거 출시됐다. 줄어드는 청주 시장에 구세주로 나타난 것이 여성들이다. 일본 청주업계는 여성들을 타깃으로 청주에 들어있는 코지산 등이 안티에이징, 미백 효과에 좋다 고 '청주 미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요시다주조에서 만든 '테도리가와카미인'은 단맛을 내는 청주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 와인, 샴페인 같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고가의 술들이 인기를 끌면서 주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샴페인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기는 중이다. 일본 주류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했던 맥주는 현재 30%로 떨어졌다.

최자영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사업개발 부문장 정리=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노르웨이 여자들도 군복무 한다는데...

지금 SNS에서는

14일 노르웨이발(發) '여성 병역의무제'가 한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궜다. 노르웨이 의회가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남녀 누리꾼들 사이에 이슈가 된 것.

남성들은 찬성론자가 많았다. "역시 선진국은 뭔가 다르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안전보장 반대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걸 본받아라" "여자들도 1년씩만 복무하면 남자들 복무기간도 줄여줄 것이다" "여자를 전투병으로 투입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몸이 약하면 취사병, 보급, 통신, 하마못해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라도 일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런 반응은 여자들의 군복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의 반응이 다소 달라진 점. 늘 반박 메뉴로 빠지지 않았던 "여자는 신체적으로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 "애를 낳고 키우니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굳이 군대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반응 대신 "좋다. 갔다 올 테니 남자들도 결혼-출산 하면 눈치 주는 회사, 명절 스트레스 똑같이 겪어봐라. 차라리 군대 1년 갔다 오고 노르웨이 여자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겠다"는 반응들이 많은 것. 예전에는 아예 논란의 대상조차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으나 이

제는 여성들에게 권리를 주면 그만큼 의무를 다하겠다는 여론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노르웨이 사정을 보면 이해가 간다. 노르웨이 사회가 이번에 징병제를 받아들인 데에는 과거 꾸준히 추진해온 여성의 권리향상 노력 때문.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2005년부터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를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배정토록 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여성 임원 비율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노르웨이의 경우 국방장관도 여성이고 이번에 법안을 주도한 의원도 여자였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확실하며 "노르웨이가 양성평등 군대를 가진 첫 유럽 국가가 되었다"고 기뻐했다.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노르웨이에서는 군인 수요가 많지 않아 징집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명예'로 통한다는 것도 우리와 다르다. 징집 대상 남성 6만 명 중 매년 선발되는 인원은 1만여 명. 신체검사 등 면밀한 선발 과정을 거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수한 인재만 선발되는 노르웨이에서는 징집이 국가로부터 우수 인력으로 인정받는 보증수표로 통한다.

안네그레테 스트렘에리크센 국방장관은 "여자 역시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투지와 능력을 갖춘 여성들만이 선택된다"면서 "병사 수가 모자라 여자를 군대 보내려는 게 아니라 징집 대상을 넓혀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어떻든 간에 이번 노르웨이발 여성군복무 소식은 지구 반대편 한국에도 '남녀평등'에 대한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졌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노르웨이에서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에 따라 여성도 입대할 수 있게 했지만 2015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된다. 복무기간은 1년으로 남성과 동일하다. 사진 출처:btimes

포토 에세이 안전씨는 댔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길 막아서 힘드시죠? 그래도 가족들이랑 함께 떠나니 즐거우시겠어요. 저도 나들이 가요. 명. 흥진환 기자 jean@donga.com

기고 | 제복에 대한 예우가 나라의 품격을 결정한다

개인적인 일로 최근 미국을 다녀왔다. 항상 태러의 위협에 노출된 국가답게 공항의 출입국 수속 절차는 불편함을 넘어 위협적이기까지 했다. 한국과의 시차 탓에 밤늦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숙소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는 미국 경찰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든든하다는 느낌보다는 이방인으로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불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변함없이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소위 제복 입은 사람들(MIU·Men in Uniform)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였다. 귀국 직후인 5월 말 워싱턴에서 고속도로 순찰 중 순직한 경찰관을 기리는 엄숙한 추모식 사진을 신문에서 봤다. 순직 경찰관을 위해 전 광공사가 조기를 게양했던 2010년 메릴랜드 주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덕분인지 미국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위는 소방관, 7위는 경찰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오죽하면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

가 중 하위권이라 하겠는가. 이런 현실에서 공권력을 상징하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권위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과욕일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공권력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데는 스스로 제복의 권위를 훼손시켜 온 일부 공직자들의 탓도 크다. 한때 나라를 지킨다는 이유로 군인이 하는 모든 일에 인내를 강요받은 탓에 제복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마치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노력으로 포장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영영 '존경 받는 제복, 권위가 살아 있는 공권력'을 갖지 못하는 불행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점에서 동아일보가 2011년 시작한 '영예로운 제복상'과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 기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이제는 이벤트성 시상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영원히 기리는 추모관 건립에도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부국이나 군

사대국 이전에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예측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선진국일수록 공권력의 권위가 살아있는 것은 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과 예우야말로 한 나라의 법질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물론 공권력 스스로 더 많은 자기반성과 개혁 노력이 시급하다.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제복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갉아먹는 부적절한 구성원들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더 이상 정권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를 최고의 명령권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제복의 가치를 깨닫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의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이길영
KBS 이사장



NongChon 농촌

외식업 30년 노하우로 만든 국내최초 LA갈비 전문점!!

2013년 부부창업, 가족창업, 업종변경 최고의 유망창업아이템 테이블 10개 일평균 매출 170만원

2013년 6월 22일 밤12:35 MBC "공감 특별한 세상" TV방영예정

외식불황에도 장사 잘되는 집으로 5월 22일 AM 08:50 MBC "생방송 오늘아침" 방영

왜 (주)CHOICEFC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CHOICE FC는 타 프랜차이즈와 차별화된 독특하고 건강한 음식을 개발하여 고객의 건강과 먹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CHOICE FC LA갈비 전문 브랜드입니다.

전국 지사 및 체인점 모집

- 1.충부지사 : 충남,충북,대전,강원일부
- 2.서부지사 : 전남,전북,광주
- 3.동북지사 : 경북,대구,강원 일부
- 4.동남지사 : 경남,부산,울산
- 5.특별지사 : 제주도

본사와 함께 제인사업용 열개할 지사장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문의 바랍니다.

*상당수선순위 특권점 확보 및 특전 있습니다.

상담문의 02.2612.3333
CHOICE FC
NAVER 초이스FC
본사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77-19 동선빌딩 5F
육가공공장 : 경기도 의정부시 선곡동 489-4
박냉면공장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적두리 759-2

THE FIRST LA갈비 / OPEN점: 서울 오류점, 경기 광명점 OPEN예정점: 서울 상암점,미아점,화곡점,대림점,면목점,인천 계산점,부천 역곡점 (02.2066.3939)(02.2615.3939)